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챗GPT 프롬프트 설계: 제작과 편집을 중심으로*

진실희(중앙대학교)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의 눈부신 발전으로 AI를 활용한 교수법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정대홍 등, 2022, p. 151; 정제영 등, 2023, p. 4; 최재용 등, 2023, p. 50).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은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패턴을 학습하는 AI로, 그 대표적인 예로 챗GPT가 있다(생성형AI연구회, 2024, p. 15; 한송이, 2023, p. 13). 챗GPT는 기존의 데이터 분류나 예측에 국한되었던 AI와 달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토리텔링과 창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번역 분야에서도 교수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 교육에서 챗GPT를 적용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최근까지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선화(2023)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챗GPT를 사용한 결과,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전 지시를 반복하는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사용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윤주 등(2023)은 국내 학부 번역 전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공자들이 챗GPT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번역 과업을 통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챗GPT의 장점을 이해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지선(2024)은 번역 교수자가 수업 준비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할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챗GPT는 텍스트 생성 및 맞춤형 교수법 설계에 탁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직간접적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챗GPT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프롬프트 사용법을 뜻한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통역 교육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고 있다. 박미정(2023)은 챗GPT와 구글 번역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통역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챗GPT의 뛰어난 맥락 추론 능력을 한일 통역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업 자료의 복습 도구나 통역 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실희(2024)는 비즈니스 통역 교육을 위한 역할극 대본 작성에 챗GPT를 적용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챗GPT를 통해 비즈니스 상황을 재현하는 역할극 대본 생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공개와 기밀유지가 강조되는 비즈니스 회의의 담화와 그 특성을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챗GPT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진실희(2024)에 이은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챗GPT를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사용 방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과 편집을 위한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챗GPT와 같은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프롬프트 제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규섭 등, 2023, p. 94; 정제영 등, 2023, p. 6).

본고에서 말하는 통역 교육 콘텐츠는 통역 교육에서 사용하는 원천 텍스트를 말하는데 텍스트 외에도 음원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통역 교육 콘텐츠는 교육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통역 현장의 담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최문선, 2013, p. 19). 그러나 동영상과 같이 실제

현장을 재현하는 자료가 반드시 최적의 교육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교육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새롭게 제작(진실희, 2024)하거나 경우에 따라 편집(이지민, 2018, p.120)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챗GPT를 교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챗GPT 프롬프트 사용요령과 설계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체계적인 프롬프트 사용을 위한 템플릿¹⁾을 제안하여 통역 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편집 도구로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프롬프트’란 사용자가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명령문으로, 질문이나 지시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역 교육 콘텐츠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위해 프롬프트 템플릿에 반영할 요소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를 유형별로 제안하고 실행 예시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통역 교육 콘텐츠 편집에 사용할 프롬프트를 유형별로 제안하고 실행 예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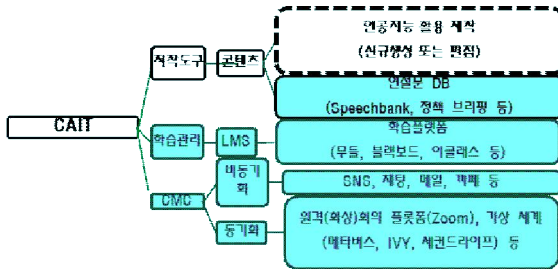
2.1 인공지능생성콘텐츠(AIGC) 연구의 학문적 위치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크게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정대홍 등, 2022, p. 20), 본고는 후자에 해당

1) 프롬프트 사용에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템플릿(template)’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생성콘텐츠(AI-generated Content, 이하 ‘AIGC’) 연구이며, 통역학연구의 맥락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는 통번역 교육공학(진실희, 2017, p. 150) 연구에 해당한다. 통번역학에서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컴퓨터보조통역교육(Computer-aided Interpreter Training, 이하 ‘CAIT’)의 범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 AIGC의 부상으로 CAIT 연구에도 새로운 영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위치는 <그림 1>과 같이 관련 분야 선행연구(진실희, 2017)의 표를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CAIT(진실희, 2017) 연구 내 인공지능생성콘텐츠(AIGC)의 위치



본고는 교수자의 수업 콘텐츠 제작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자의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수자의 가용시간을 늘려 보다 중요한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정대홍 등, 2022, p. 109)할 것으로 기대한다.

2.2 콘텐츠 개발에 최적화된 챗GPT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다수의 전문가들은 챗GPT가 정보 검색에 최적화된 도구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반병현, 2023, pp. 46-49; 정제영 등, 2023, p. 33; 최재용 등, 2023, pp. 122-124).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유연하게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이를 다양한 문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의 정확한 일치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환각(hallucination)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면 챗GPT를 사실 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각은 챗GPT의 가장 잘 알려진 취약점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현상을 말한다(정제영 등, 2023, pp. 42-45). 환각 외에 유념해야 하는 점은 학습된 데이터의 편향성에 따라 결과물에도 인종 차별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정제영 등, 2023, p. 43). 이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실시간 자동 응답이 제시되는 챗봇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통역 수업에서 사용할 대본의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창작형 글쓰기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챗GPT의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로 대규모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다. 정제영 등(2023, p. 31)에 따르면 챗GPT는 언어 모델 학습 후 입력 시퀀스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훈련을 거친다. 또한, 미세 조정과 인간 피드백을 통해 의미와 문맥 파악 능력이 향상되어 자연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오픈AI의 챗GPT는 인간 피드백을 반영한 강화 학습을 통해 문장 생성 방식이 개선되어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챗GPT는 콘텐츠 생성의 효율적인 도구이자 이야기 창작 능력을 갖춘 유용한 저작도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통역 현장의 상황을 재현하는 도구로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AI연구회(2024, p. 22-39)에 따르면, 방대한 언어 데이터 셋을 학습한 챗GPT는 텍스트의 어조를 설정하고 편집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다양한 감성을 나타내는 어조나 문체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듯이 써보세요”와 같은 형식으로 어조를 주문할 수 있다.

챗GPT가 교수자의 도구로 유용한 또 다른 이유는 그 기능적 확장성에 있다. 플러그인(plugin)²⁾을 통해 동시에 최대 3개의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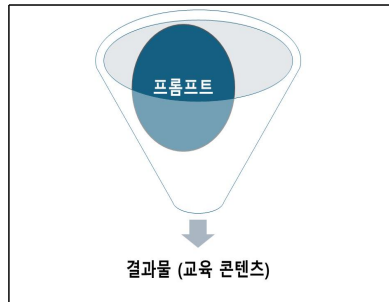
2) 오픈AI의 챗GPT 설정 메뉴 중 Beta Features탭의 플러그인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터넷 검색을 위한 브라우징(browsing), 파이썬(Python)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용할 수 있는데, 가령,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 수업에서 실제적 상황 재현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자료³⁾를 수업 콘텐츠 내용에 맞게 자동으로 제작하여 수업에 사용할 수 있다(생성형AI연구회, 2024, pp. 42-62).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챗GPT는 2020년 2월 오픈 AI가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개발을 목표로 공개한 이래 GPT-2, GPT-2 Large, GPT-3, GPT-3.5를 거쳐 2023년에는 GPT-4가 출시(정제영 등, 2023, pp. 22-23)되었으며, 2024년 현재에는 GPT-4o가 공개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프롬프트와 거대언어모델, 그리고 생성결과물의 관계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해당 그림에서 짚어주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2

프롬프트와 거대언어모델(챗GPT), 결과물(교육 콘텐츠)의 관계



2.3 프롬프트의 사용과 설계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AI에 입력하는 문구를 뜻한다(김규섭 등, 2023, p. 94). 좋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결과물의 품질이 크게 향상(김규섭 등, 2023, pp. 94-97)되기 때문에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법을 숙

인터프리터(Code Interpreter), 각종 문서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리트리벌(Retrieval) 외에 다양한 플러그인 서비스로 연결된다.

3) 예를 들어 이지민(2018), 이주연(2020), 진실희(2024)에서는 파워포인트 사용을 통해 보다 생생한 현장감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해야 한다. 프롬프트 사용 능력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과 수준이 달라지는데(서승완과 채시은, 2023, p. 59), 그 이유는 챗GPT가 고정된 답변을 제시하는 싱글 턴(single-turn)이 아닌, 질문마다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 턴(multi-turn) 방식으로 작동(장민, 2023, pp. 259-264)하기 때문이다.

챗GPT를 교수 도구로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롬프트 설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롬프트 설계란 “생성형 AI로부터 높은 품질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 입력 값들의 조합을 찾는 작업”을 말한다(생성형AI연구회, 2024, p. 32).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할 경우 프롬프트 퍼펙트(PromptPerfect)를 통해 프롬프트 최적화의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프롬프트 베이스(PromptBase)라는 플랫폼에서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거래할 수 있으며, 양질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AIPRM⁴⁾을 사용할 수도 있다(생성형AI연구회, 2024, p. 249). 이상의 참고자료는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대표적인 프롬프트 관련 서비스

참고 자료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GPT Insights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bmc.link/chatgptinsights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PRM⁶⁾ The Ultimate Collection of ChatGPT Products and Promp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www.aiprm.com/ko/ https://promptsChatGPT.com/the-ultimate-collection-of-ChatGPT-products-and-prompts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mptPer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promptperfect.jina.ai/home

프롬프트 설계의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생성형AI연구회,

4) 2024년 8월 기준 약 4,000개의 프롬프트 템플릿이 소개되어 있다.
 5) 해당 사이트에는 AI 전문가 팀으로, ChatGPT 등 다양한 주제의 심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6) AIPRM은 프롬프트 관리 도구로, ChatGPT, Bard, Midjourney, DALL-E 3에 대한 준비된 프롬프트 추천한다.

2024, p. 27). 첫째, AI에 전달할 명령을 설계한다. 둘째, 이 명령을 바탕으로 AI로부터 필요한 답변이나 반응을 유도한다. 셋째, 보다 나은 방법을 탐색한 후 체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한다. 요컨대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프롬프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챗GPT를 통역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바, 그 첫 번째인 ‘AI에 전달할 명령을 설계한다.’는 결국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방법이란 무엇일까? 장민(2023, pp. 259-264)이 추천하는 프롬프트 사용 요령은 프롬프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입력할 것, 가급적 ‘영어’로 작성할 것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급적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챗GPT-4가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지만, 여전히 영어에 비해 한국어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픈 AI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챗GPT-4o 버전에서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란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라고 입력하기 보다는 ‘나는 대학교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세 가지 제시하고, 관련 참고문헌도 함께 제공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요청을 구체적으로 할 것과 문장부호(괄호, 따옴표 등)를 사용해 프롬프트 내용에서 강조할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프롬프트 크리에이터(2023, pp. 46-48)가 추천하는 방법은 결과물의 길이가 짧을 경우 ‘이어쓰기’를 요청할 것과 한꺼번에 요청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요청할 것, 프롬프트의 품질 최적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다듬으면서 효과를 평가할 것 등이다. 그 외에 생성형AI연구회(2024, p. 62)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시를 잘할 것, 추상적이거나 장황한 주문을 지양할 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맥락을 제공할 것, 결과물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프롬프트 사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천 사항을 종합해보면,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최초 명령문을 입력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다듬어가며 의도한 방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도구이다. 이러한 프롬프트 사용 요령은 기본 요령과 고급 요령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으며, 프롬프트 설계의 일련의 단계를 종합한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프롬프트 사용의 요령과 설계

내용		예시
사용 요령 과 설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 역할 부여하기 • 가급적 영어로 • 반복하면서 다듬기 (결과물 보완)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 사용으로 강조하기 • 이어서 쓰기 요청하기 (짧을 경우)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단계: AI에 전달할 프롬프트를 설계한다. • 2 단계: 유용한 반응이나 답변을 유도한다. • 3 단계: 개선할 방법을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롬프트 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AI로부터 유용한 반응이나 답변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반복적인 연습과 수정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감각을 익히고 대화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챗GPT의 응답 품질을 향상시키고 필요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템플릿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다.

생성형AI연구회(2024, p. 40)는 이상의 요소들을 잘 정리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템플릿은 ‘역할-작업-답변’과 ‘CORE’라고 불리는 템플릿이다. CORE에서 C는 맥락정보(Context)를 뜻하며, O는 결과물(Output)의 형식, R은 참고자료(Reference), E는 예시(Example)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역할-작업-답변 템플릿보다 CORE 템플릿이 보다 포괄적이면서 통역 교육 콘텐츠 작성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CORE 템플릿을 참고하였다. CORE 템플릿은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을 위해 CORE 템플릿과 관련한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요약하면,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프롬프트에 맥락정보(C), 결과물의 형식(O)과 참고자료(R) 및 예시(Example)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표 3
CORE를 중심으로 한 프롬프트 사용 템플릿

C	맥락정보 (Context)
O	결과물 형식 (Output)
R	참고자료 (Reference)
E	예시 (Example)

프롬프트 설계를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보다 나은 방법을 탐색한 후 체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프롬프트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의 3장과 4장에서는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제작’과 ‘편집’이라는 두 기능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제안하고 실행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법을 탐구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제작’과 기존의 자료를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편집’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그 중 첫 번째인 신규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 사용을 제안하고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

앞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 1) 맥락, 2) 결과물 형식, 3) 참고자료 4) 예시를 아우르는 CORE의 틀을 사용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바 있다. 이 같은 템플릿을 실제로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통역 교육에 사용되는 원천 텍스트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만큼 일반적으로 통역 현장에서 사용되는 담화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역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텍스트로 구성한다(최문선, 2013, p. 19). 따라서 현장의 많은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요소들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에 고려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현장의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현장의 통역 상황은 매우 다양(Pöchhacker, 2004, p. 24; Setton & Dawrant, 2016, pp. 20-41)하며, 이를 모두 교육 현장에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일부 변수를 수업 상황에서 재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혜연(2023)에 따르면, 통역의 상황적 변수란 ‘통역 상황에서 통역 행위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이지만(p. 114) 본고의 범위에서는 텍스트에 반영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통역 상황에서 통역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맥락 중 언어적 요소를 콘텐츠 제작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의 통역 상황을 조사한 이지민(2018)에 따르면, 국내 순차통역의 수요는 협상 통역이 가장 높은 빈도와 시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출시회, 설명회, 심포지엄, 토론회, 수행 통역, 면담, 기념식, 기자회견 순이다. 또한, 통역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정부기관, 은행/금융기관, 제조, 서비스, IT, 교육/학술기관이 확인되었다(p. 207). 이는 <표 4>와 같다.

표 4

업종별 통역 수요 (이지민, 2018, p. 204)

종류	업종(비중이 큰 순서대로)
협상	제조, 의약/제약, 서비스, IT, 정부기관, 은행/금융, 교육/학술기관
출시회	IT, 정부기관, 서비스, 교육/학술기관, 제조, 은행/금융
심포지엄	정부기관, 교육/학술기관, 서비스, IT, 의약/제약, 기타(비영리단체), 제조, 은행/금융
수행	정부기관, 서비스, 교육/학술기관, 기타(비영리단체), IT, 은행/금융
면담	정부기관, 서비스, IT, 제조
기념식	서비스, 정부기관, IT, 교육/학술기관
기자회견	정부기관, 서비스, 교육/학술기관, 제조

주주총회/ 재판	법률관련기관/기업, 정부기관
감사	제조, 정부기관

이상과 같이 수업 계획에 실제 통역 상황을 반영한 예시는 이주연(2020)에서 제시한 <표 5>의 예시와 같다.

표 5

16주 수업 구성 및 수업 자료 (이주연, 2020, p. 115⁷⁾)

주	주제 분야	통역 상황	수업자료
2	자기계발	강연	강연 동영상
중략			
7	IT	강연	발표 동영상
9	금융	발표	PPT 슬라이드
중략			
12	통신사	실적발표	실적발표 음성링크(통역포함)
13	과학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팟캐스트 링크

이상의 요소들을 반영한 통역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앞서 도출한 CORE 템플릿을 중심으로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의 맥락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템플릿의 각 요소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CORE 템플릿의 첫 번째 항목은 C로, 맥락정보를 말한다. 통역사가 통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발화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적 맥락 정보가 필요하다(Lederer, 2008, pp. 56-57). 그 외에도 참가자들 간의 위계구조나 의사소통의 목적, 회의의 목적 등이 발화해석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단서이다(Thiery, 2008, pp. 40-43). CORE 템플릿의 두 번째 항목은 O로, 결과물의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화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할극, 연설문, 문장 길이 등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CORE 템플릿의 세 번째 항목은 R로, 참고자료를 말한다. 보도자료나 뉴스 기사, 회

7) 해당 문헌에서 제시한 표를 본고의 목적에 맞게 편집하였음.

의록 등이 해당하며, 파일 형태로 프롬프트 창에 첨부하여 프롬프트를 보완할 수 있다. CORE템플릿의 네 번째 항목은 E로, 예시를 말한다. 말투 등의 경우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프롬프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상의 CORE의 형식으로 살펴본 요소들을 각 통역의 상황요소 및 난이도 요소와 조합하여 프롬프트에 입력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CORE에 기반을 둔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 프롬프트 템플릿

	템플릿	키워드	프롬프트 예시
C	맥락정보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참가자, 직위, 인원 • 왜: 회의 목적 • 무엇을: 주제(산업)분야 • 어디서: 장소/회의/원격여부 • 어떻게: 언어/어조/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경제부총리가 2024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회의에 참가해서 전달하는 기초발언을 작성해줘. • 공식적이고 정중한 어조로 만들어줘.
O	결과물 형식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화유형: 역할극, 연설, 인터뷰, 강연, 기념식, 협상 • 각 발언(문장)의 길이/특성 • 텍스트(에피소드)의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의장과 타국의 수석대표들이 포함된 역할극 대본 형태로 작성해줘.
R	참고자료 (Re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보도자료 • 관련 뉴스 기사 • 보고서 • 교재 등 • 어휘(용어)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해줘.
E	예시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할 어휘의 수준 • 필수 포함 용어 • 말투, 어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용어는 배제하고 공식적인 어조로 작성해줘.

이상의 CORE 템플릿을 바탕으로 통역 현장의 상황 요소를 프롬프트 템플릿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제, 실제 실행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의 실제 사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든 조합 가능한 프롬프트의 예시를 실행하고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실행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7

C와 O에 기반을 둔 제작 프롬프트 템플릿과 결과 예시

템플릿	프롬프트	결과물
맥락정보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경제부총리가 2024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회의에 참가해서 전달하는 기조발언을 작성해줘. • 공식적이고 정중한 어조로 만들어줘. 	<p><기조 연설문> 존경하는 OECD 회원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성명]입니다. 우선, 2024년 OECD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중요한 회의를 주최해주신 프랑스 정부와 OECD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 [중략]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OECD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p>
결과물 형식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의장과 타국의 수석대표들이 포함된 역할극 대본 형태로 작성해줘. 	<p><OECD 회의 역할극 대본> 등장인물 의장: OECD 회의 의장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성명] 프랑스 수석대표: 프랑스 경제부 장관 미국 수석대표: 미국 재무부 장관 독일 수석대표: 독일 재무부 장관 [장면 시작: OECD 회의장.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한다.] 의장: 존경하는 각국 수석대표 여러분, OECD 회원국 대표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님께서 기조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감사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OECD 회원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성명]입니다. 먼저, 2024년 OECD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회의를 주최해주신 프랑스 정부와 OECD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하 생략]</p>

첫 번째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기조연설문은 연설문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갖추어 기승전결을 이루며, 요청한 공식적인 어조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물 형식에서도, 역할극 대본 형태로 내용을 재작성하여 주요 참가자와 발언자의 발화를 역할극 대본 형태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CORE의 각 항목들을 수행해본 결과 맥락정보와 결과물 형식은 필수 정보인 반면 참고자료와 예시는 보다 정교한 결과물로 다듬어 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 정보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R(참고자료)과 E(예시)를 사용한 프롬프트 및 그 결과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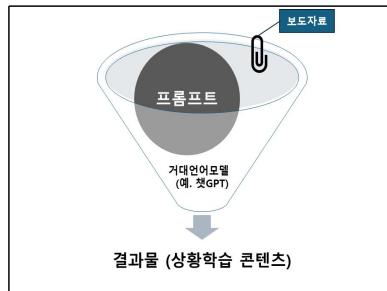
R과 E에 기반을 둔 제작 프롬프트 템플릿 및 결과 예시

템플릿	프롬프트	결과물
참고자료 (Reference)	<p>[보도자료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있었던 대화처럼 대본을 작성해 줄 수 있을까 	<p>[인사말 등 생략]</p> <p>안덕근 장관 (장관):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리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현재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p> <p>조나단 레이놀즈 장관 (Reynolds): Absolutely. The Downing Street Agreement set the stage for a deeper partnership, and I'm keen to discuss how we can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our commitment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UK-Korea FTA. This partnership is critical, especially as we face global uncertainties.</p>
예시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에 “그러니까 말이지요. 아니” 등과 같은 주저어를 섞어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님께도... 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성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음,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국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간의 협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템플릿에 따라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적용해본 결과 맥락 정보를 대신하여 참고자료에 보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별도의 맥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황적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보도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프롬프트를 보다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도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어 프롬프트를 시작하는 용도로 첨부파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프롬프트와 첨부파일(보도자료)의 혼합사용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방법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소개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제한을 받는 방법이 있다. AIPRM을 플러그인 형태로 확장하여 프롬프트 추천을 받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프롬프트를 추천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프롬프트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부여할 경우 유용해 보인다.

표 9
AIPRM 추천 프롬프트의 예시

AIPRM 추천 프롬프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이 양국의 경제 및 통상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을 대화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한국 장관은 한국어로, 영국 장관은 영어로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논의 주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양국 간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등입니다. 대화는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며, 공식적이고 정중한 어조를 사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복잡한 전문 용어나 어려운 개념은 사용하지 말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해 주세요.
------------------------------	--

4. 자료의 편집을 위한 프롬프트

본 장에서는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 중 기존의 자료를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편집’을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안하고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4.1 기존 콘텐츠 ‘편집’을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역 교육에서 원천 텍스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텍스트의 길이, 주제, 정보의 구체성이 통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awyer, 2004).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는 문법 구조, 정보 밀도, 어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Barik, 1973), 이는 통역사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ones, 2002). 따라서 통역 교육에서는 원천 텍스트의 특성과 난이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eleskovitch & Lederer, 1995). 박혜경(2006)과 최문선(2012)은 효과적인 통역 교육을 위해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는 출발어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임순정(2021) 또한 연사들의 세련된 언어 표현이 발화의 이해와 재표현의 난이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통역 콘텐츠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 요소이다.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는 통역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육 교재나 자료 개발, 수업, 시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eleskovitch & Lederer, 1995; Setton & Dawrant, 2016).

이상의 이유로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는 교육 목표와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통역 교육 콘텐츠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최문선(2013, p. 148)에 따르면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는 주제, 어휘, 문장, 논리, 정보 밀도, 도착어 표현이다. 통역 교육을 위한 원천 텍스트는 이들 요인의 유무나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각 난이도 요인에 대한 세부 요인에 대한 설명은 <표 10>과 같다.

표 10

원천 텍스트 난이도 요인(최문선, 2013, p. 148⁸⁾)

주요 요인	세부 요인
주제	개념, 전문용어, 고유명사
어휘	고급어휘, 일상어휘, 전문용어, 고유명사,
문장	문장의 길이, 구조, 성분 생략
논리	문장 간 연결 지시대상 불분명한 지시어 등 신정보 출현 숫자
정보 밀도	정보 밀도, 숫자(단위, 비교 대상 포함)
도착어 표현	은유적 표현, 관용어구, 문화적 표현, 속담 및 격언, 뉘앙스

앞서 통역의 상황 요소를 살펴본 것처럼, 통역의 난이도 요인도 <표 11>과 같이 프롬프트 키워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1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 조절(편집)을 위한 프롬프트 제안

난이도 요인	프롬프트 키워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전문가 회의 • 전문용어 유/무, 많게/적게, 고유명사 유/무, 많게/적게 • 개념이해를 전제로 한/하지 않는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일상 어휘, 전문용어, 고유명사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길게/짧게, 구조: 복잡한/간단한 구조로 • 성분: 주어 등을 생략/추가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간 연결: 모호/명료하게, 숫자: 많게/적게 • 지시대상: 모호/명료하게, 신정보 출현: 많게/없게
정보 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게/낮게
도착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적 표현, 관용어구, 문화적 표현, 속담 및 격언 • 뉘앙스

8) 문헌에서 제시한 표의 핵심 내용을 본고 목적에 맞게 편집하였음.

기존 자료를 편집하는 방법이나 용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를 모두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표 11>과 같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프롬프트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4.2 ‘편집’을 위한 프롬프트의 실제 사례

이상의 통역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을 기준으로 기존 콘텐츠의 편집을 위한 템플릿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원천 텍스트 난이도 요인 중 주제, 어휘, 문장에 대한 결과물 예시

난이도 요인	프롬프트 예시	결과물 예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설문을 FTA 분야 협상 상황을 다루는 내용의 역할극 대본 형태로 편집해줘. 	<p><FTA Negotiation Role-Play Script> Scene: Two delegations, one from Korea and one from the United Kingdom, are seated at a conference table. They are discussing the upcoming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p> <p>Korean Delegate 1: (Opening the conversation)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무역,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p> <p>UK Delegate 1: (Nods in agreement) Yes, we're keen to ensure that the revised FTA reflects the new trade realities. The current agreement, while effective, needs to adapt to emerging sectors like digital services and renewable energy. Our businesses are looking for more streamlined procedures and updated regulatory frameworks.</p>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는 고급어휘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많이 넣어줘. 	<p>Korean Delegate 1: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디지털 무역, 공급망 복원성, 에너지 전환과 같은 분야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p>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문장의 길이는 길고 짧은 발화를 혼합해주고, 문장의 구조는 중간 정도로 복잡하게 해줘. 	<p>Korean Delegate 1: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공급망 복원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p>

본 연구에서 언급한 ‘편집’ 기능이란 기존 텍스트를 챗GPT 프롬프트 창

에 첨부파일 또는 텍스트 형태로 입력한 후, 이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챗GPT의 편집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책 포털에서 연설문을 선정하여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였다. 이어서 해당 연설문을 대화체 형식의 역할극 대본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용된 연설문은 2023년 11월 22일자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된 대통령 축사문이다. 이를 FTA 협상 역할극 대본으로 변환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연설문의 정보적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한국과 영국 간 FTA 협상을 수행하는 대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원천 텍스트 난이도 요인 중 논리, 정보밀도, 도착어 표현에 대한 결과물 예시

난이도 요인	프롬프트	결과물 예시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자를 많이 넣어줘. 	<p>Korean Delegate 1: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영 FTA가 더욱 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향후 5년 안에 1,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정보 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밀도는 중간 정도로 해줘. 	<p>Korean Delegate 1: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규모가 현재 1,2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무역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해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입니다.</p>
도착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 상황에 어울리는 긴장감을 넣어줘. 	<p>UK Delegate 1: (Leaning forward slightly) We appreciate that. However, the stakes are high, and we must be pragmatic about what's achievable. Our current trade volume is significant, yes, but if we're going to expand this by 15% or more, as we've projected, we need concrete commitments. The digital economy, for example, is a sector where delays in regulatory alignment could stall progress entirely. We need assurances.</p> <p>Korean Delegate 2: (Responding, with a firm tone)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문제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팬데믹 동안 공급망 붕괴로 인해 주요 산업의 생산이 25% 이상 감소했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p>

이후 본 연구에서 정리한 편집용 프롬프트를 하나씩 입력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앞부분만 비교하였으나, 각 난이도 요인에

따라 텍스트가 요구사항에 맞게 편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동일한 대사에 숫자가 문맥에 맞게 삽입되었고, 긴장감이 도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요청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발언이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물의 예시는 <표 13>와 같다. 그 외에도, 도착어 표현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맥락에 맞게 추가하는 기능이 난이도 조절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연설문에 맥락에 맞는 적절한 사자성어나 속담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I'd like to use the following speech as an interpreter training material. Could you help me add some appropriate proverbs that nicely fit into the context of the speech”), <표 14>와 같이 문맥에 어울리는 속담이 추가되었다.

표 14

원천 텍스트 난이도 요인 중 도착어 표현(속담 추가)에 대한 결과물 예시

편집 전 (속담 추가 전)	편집 후 (속담 추가 후)
<p>A warm welcome to you Secretary Manalo and your delegation. It's great to see you again here in Seoul following our brief meetings in Vientiane a couple of weeks ago.</p> <p>I am particularly pleased that this is the first visit to Korea by a Philippine Foreign Minister in seven years, a long hiatus indeed.</p>	<p>A warm welcome to you, Secretary Manalo, and your delegation. It's great to see you again here in Seoul following our brief meetings in Vientiane a couple of weeks ago. As the saying goes,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 and I believe this meeting marks an important step in our long-standing relationship.</p> <p>I am particularly pleased that this is the first visit to Korea by a Philippine Foreign Minister in seven years—a long hiatus indeed. “Better late than never,” as they say, and this visit comes at a critical juncture.</p>

이상으로, 본고의 3장과 4장에서는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챗GPT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안하고, 실제 실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역 교육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새롭게 생성하고, 난이도 요인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편집하는 기능이 대체로 잘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역 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을 교수자의 교육 목적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편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을 <그림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
원천 텍스트를 프롬프트와 함께 입력하는 편집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가능한 조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 범위 내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합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별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품질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면서

본 연구는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 연구의 일환으로, 통역 교수자가 챗GPT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챗GPT의 프롬프트 사용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챗GPT 프롬프트 사용 요령과 설계 절차를 도출하여 이를 표로 정리하고,

통번역 교수자가 교육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챗GPT를 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료를 처음부터 생성하는 ‘제작’과 기존 자료를 교육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편집’ 기능으로 나누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참고할 프롬프트 템플릿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제시하였다. 특히, 문헌 고찰을 통해 통역 상황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CORE(맥락, 결과물, 참고자료, 예시) 템플릿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넷째, 통역 교육 콘텐츠 편집 시 활용할 프롬프트 템플릿을 최문선(2013)의 난이도 요인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진실희(2024)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챗GPT를 맞춤형 수업 자료 제작에 두 학기에 걸쳐 적용한 경험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챗GPT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찰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챗GPT는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을 위한 역할극 대본 생성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인지적 도제 학습(cognitive apprenticeship)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챗GPT의 도구적 기능에 더하여 교수자의 교육적 통찰과 경험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챗GPT는 무한대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편리한 교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챗GPT는 유연한 텍스트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학습자나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향후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를 학습 플랫폼에 탑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학습과 실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통역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AI 활용에 따른 한계점 역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역 교육에서 핵심적인 원천 텍스트를 교육 목적에 맞게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규섭, 김영철, 우성재, 임주환, 이우현, 남덕호. (2023) AI와 챗봇. 넷마루.
- 박미정. (2023). 생성형 AI와 기계번역: 챗GPT 번역을 통한 한일통역교육 고찰. 통번역학연구, 27(3), 27-56.
- 박혜경. (2006). 국내 통역대학원 교육방법론의 재고(再考): 1학기 순차통역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8(2), 61-80.
- 반병현. (2023).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능출판사.
- 생성형AI연구회. (2024). 생성형 AI 프롬프트 디자인. 광문각출판미디어.
- 서승완, 채시은. (2023). (챗GPT가 쏘아올린 신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 에드앤미디어.
- 신지선. (2024). 번역교육에서 챗GPT의 활용 방안 탐구. 번역학연구, 25(2), 29-67.
- 이선화. (2023).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51-379.
- 이주연. (2020). 전문순차통역 수업 설계: 실행연구. 통역과 번역, 22(2), 105-128.
- 이지민. (2018). 국내 순차통역 상황 요소와 연계한 통역 능력 정의 및 수업 모형 개발. 통번역학연구, 22(3), 197-225.
- 임순정. (2021). 맥락에 기반한 통역 교육: AB 순차 통역 수업 사례 분석. 번역학연구, 22(1), 219-245.
- 장민. (2023). 챗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알투스.
- 정대홍, 조영환, 임철일, 손미현, 김민성, 이상일, 김선희, 류나영, 김기택, 이병민, 성민창, 성상환, 이옥선, 박재범, 이경화, 유연주, 조정효, 문공주, 박동열, ... 강은희. (2022). 인공지능 시대, 교사가 만드는 미래학교. 교육과학사.
- 정제영, 조현명, 황재운, 문명현, 김인재. (2023). 챗GPT 교육혁명. ChatGPT

- 를 활용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미래교육. 포르체.
- 정혜연. (2023). 통역학 개론 (4판). 한국문화사.
- 지윤주, 이상빈, 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진실희. (2017). 통역교육의 교육공학적 접근: CAIT 수업 설계를 위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21(2), 133-162.
- 진실희. (2024). 생성형 AI 활용 통역 교육 사례연구: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통역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3), 187-214.
-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7-276.
- 최문선. (2013). 영한 순차통역 교육을 위한 원천텍스트 난이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RISS.
- 최문선. (2023). 통역 교육에서의 원문 텍스트 난이도 평가 자동화: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다차원적 텍스트 난이도 평가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5(1), 131-153.
- 최재용, 김경희, 김다희, 김정화, 김중현, 배미주, 원수희, 이진호, 황충빈. (2023). 전문직을 위한 AI 챗GPT. 미디어북.
- 프롬프트 크리에이터. (2023). 된다! 하루만에 끝내는 챗GPT 활용법. 이지스 퍼블리싱.
- 한송이. (2023).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학사.
- Barik, C. (1973).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emporal and quantitative Data. *Language and Speech*, 16(3), 237-270.
- Jones, R. (2002).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Routledge.
- Lederer, M. (2008). The Role of Cognitive Complements in Interpreting.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53-60). John Benjamins Publishing.
- Pöchhacker, F. (2004). I in TS: On partnership in translation studies. In C. Schäffner (Ed.),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synergies* (pp. 104-115). Multilingual Matters.
- Sawyer, B. (2004). *Fundamental aspects of interpreter education: Curriculum*

- and assess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 Seleskovitch, D., & Lederer, M. (1995).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The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 Setton, R., & Dawrant, A. (2016). *Conference interpreting: A complete course and trainer's guide* (2 Vol.). John Benjamins.
- Thiery, C. (2008). The Sense of Situation in Conference Interpreting. In D. Bowen & M. Bowen.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40-45). John Benjamins Publishing.

ChatGPT prompt design for interpreter training content development: Focusing on text creation and editing

Silhee Jin (ke9740@cau.ac.kr)

Chung A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prompt design for large language models (LLMs), specifically ChatGPT, and its application in interpreter education. Position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 (CAIT), this study explores how ChatGPT can assist in generating and editing interpreter training contents. By integra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ith practical applications, the research provides concrete examples of ChatGPT prompts for two primary purposes: creating new source texts and editing existing content. For content generation, the study recommends using a CORE template, leveraging materials such as press releases, news articles,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to initiate a prompt serie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inclusion of difficulty elements in source texts, such as proverbs, idiomatic expressions, numbers, and other intricate features of text composition.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AI-generated content (AIGC) in enhancing interpreter education, particularly by offering a scalable solution for creating diverse and challenging training materials. The study concludes by recommending further research to explore more sophisticated applications of LLMs i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s. Despite some limitations, the findings emphasize that tools like ChatGPT represent a valuable resource for enriching interpreter education, indicating a promising future at the intersection of AI and pedagogy.

Keywords: Computer-assisted interpreter training (CAI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arge language model (LLM); ChatGPT prompt; AI-generated contents (AIGC)

키워드: 컴퓨터보조통역교육, 생성형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챗GPT 프롬프트, 인공지능생성콘텐츠

진실희(<https://orcid.org/0009-0007-5538-3415>)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부교수
ke9740@cau.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